십자가의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도행전 21:27-36)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삶을 세상적인 영웅담이나 권력의 승리로 채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록했다면 로마 황제를 전도하고 기독교 공인을 이루어 국장으로 장엄하게 마감하도록 꾸몄을 것입니다. 혹은 땅끝에서 장렬하게 순교하여 한 알의 밀알이 되었다는 극적인 감동을 남기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기대를 철저히 비켜나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드라마틱한 반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화려한 결말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치열한 믿음의 과정 그 자체를 주목합니다. 성도가 맺어야 할 진정한 열매는 천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 가문의 번영과 사회적 우월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는 인생은 자기를 부인하고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므로 세상의 눈에는 도리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른 바울의 모습은 처연하고 외로웠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그를 율법을 파기하는 자라고 지탄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으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정도로 관습을 존중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그를 형제라 부르면서도 차가운 냉대와 불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헌신이 오해를 받을 때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결코 낙심하거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과 거짓 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성전을 더럽혔다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극에 달하면 작은 일도 왜곡하여 상대를 죽이려 듭니다. 교회 안과 밖 모두 거짓 소문에 휘둘려 진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비난과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성도는 타인의 말을 쉽게 믿고 비난에 동참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물질이나 질병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함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사여탈권이 없었으나 성전 모독 현행범에 한해서는 즉결 처형이 묵인되었습니다. 무리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성전 북서쪽 안토니아 요새에 주둔하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소동을 감지하고 즉시 출동했습니다. 군사들이 개입하자 구타는 멈추었으나 무리는 요새 계단까지 쫓아가며 폭행을 지속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심한 부상으로 군사들의 손에 들려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성도가 있었지만 바울을 변호하거나 보호해 주는 신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다수의 무리가 존재해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온 세상이 바울을 죽이려 달려드는 순간에도 바울은 불안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인 에이레네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로 결단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참혹한 위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조금만 늦었어도 바울은 성전 밖에서 즉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분노에 눈이 먼 유대인들이 횡설수설하며 일관성 없는 주장을 펼쳤기에 천부장은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의 치안권을 발동했습니다. 로마 군대에 체포된 것은 바울을 암살하려던 40명의 결사대로부터 그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오랜 사명지였던 로마로 가는 길은 막대한 여비와 위험이 따르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 되어 국비로 배를 타고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방패로 삼아 의인을 은혜로 호위하셨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은 참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모함과 까닭 없는 고난의 사슬에 묶이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도 비방과 고립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옥죄는 그 사슬은 더 큰 화를 막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이자 보호막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성벽이 되어 치명적인 재앙을 넘어가게 하므로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난이 악한 생각과 만나면 원망과 불평으로 영혼이 망가지지만,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면 가장 아름다운 걸작인 포이에마로 변화합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세속적 조건으로도 자기를 내세우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는 폭력 앞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수치 속에서도 복수하지 않고 침묵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사탄에게는 막강한 파괴력이 있을지언정 온전한 자기희생의 사랑은 없습니다. 맞대어 싸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를 때 사탄의 모든 계략은 무력화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겉보기에 큰 위험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지혜이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따르는 길만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생명의 길입니다.